



삶에서 걷는 '공통분모' 혹은 '연대'

'풍자와 해학'을 선사하겠다는 모 방송국의 '허생전'류의 무대들, 다른 하나는 웃음 위에 현실고발을 실어내며 '민족극'의 이름으로 펼쳐지던 야외 공연... 우리가 마당극에 대해 지닌 기억의 잔상들이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도 가고 어설픈 국풍과 마당 놀이의 바람도 지나간 자리, 마당극의 시대도 그렇게 저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들려주며 웃음의 연대를 펼쳐내는 이가 있다. 바로 <복어가 끓이는 해장국>과 <염쟁이 유씨> 등의 작가 김인경. 웃음이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녀에게 물어봤다.

글 차선아 본지 책임편집자 | 사진 박정훈

웃지 못할 일들을 웃으면서 말할 때

문화예술 이번 인터뷰를 하기 전 <염쟁이 유씨>를 보고 왔다. 구수하다는 느낌과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개방적인 형태의 '연극'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작가인 당신이 마당극 배우이기도 해서 이 작품을 '마당극'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마당극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김인경 사실 마당극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시작한 것이고, 정치적 풍자가 많아서 공연이 어렵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잦았다. 탈춤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탈춤의 등장인물들이 지닌 캐릭터에서 인물이나 대사를 가져와 현대적인 해학을 주는 부분도 강하다. 한마디로 거리극이나 야외극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연극도 그렇지만 마당극은 관객을 끊임없이 극 안으로 끌어들여 집중, 몰입하게끔 하는 장르다. '마당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당'이라는 말이 품은 것처럼, 관객과 떨어지지 않고 높고 낮음 없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고 매력이다.

문화예술 '해학'이라는 표현이 우리네 웃음을 대표하지만, 오늘날 웃음은 그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복어가 끓이는 해장국>이나 <염쟁이 유씨> 등의 작품을 보면 현대적인 해학을 경험하게 된다고들 평가한다. 양반이나 기득권을 풍자하던 과거의 탈춤이, 페미니즘이나 죽음 등의 대상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마당극 작가로서 담고 싶거나 담아낸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웃음의 소재를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소재나 대사를 찾아내는 방법은?

김인경 과거의 마당극은 풍자가 강했고, 웃음을 통해 비판하려는 대상이 명확했다. 하지만 내게 있어 웃음은 우리 주변의 웃지 못할 일들을 비춰보고 살펴보는 데 필요한 공감대 역할을 한다. <복어가 끓이는 해장국>은 남녀의 역전을 통해 성차별을 짚어보는 작품이다. 성차별을 두고 웃을 수는 없지만, 그 역을 통해 웃을 수는 있다. 그게 단지 웃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 비루하고 슬플 수도 있는 그런 웃음 아닌가. 답답한 것을 답답하게 풀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당극 자체가 웃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미는 관객의 웃음을 두 번 유발할 수 있도록 몰고가는 게 최고다.

그리고 웃음을 찾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좀 웃기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사는 데서 찾는 것이 제일 많다. 솔직히 말만 가지고 웃기는 것이 힘들 뿐더러, 그 웃음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상황을 반영하고 담아낼 때 관객을

웃길 수 있고, 그래서 일상에서 찾아낸 공감대가 절실해진다. 이런 공감대는 그리 먼 데 있지 않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웃기는가. 라디오 DJ가 읽어주는 사연 듣다보면 요절복통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활하면서 우연히 겪거나 듣고 보게 되는 나와 주변사람들의 일은 또 어떤가. 이 역시 그 자체로 생생하고 진지하며 너무 웃길 때가 많잖은가. 웃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낸다고 하면 충분한 대답이 될까?

답답한 문제를 답답하게 풀 수는 없다

문화예술 당신의 말처럼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문제화해, 여성의 관점으로 만든 여성 마당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쌍의 부부는 연령대, 소득과 직업, 교육 정도를 대표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들을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유형화된 교훈극에 머문다는 생각도 해본다. 어떤가?

김인경 가사와 육아, 폭력과 남아선호사상의 압박 속에 ‘아내’라는 존재는 가정의 재생산 도구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대와 문화 계층이 다른 부부 세 쌍을 설정하고, 이런 차별의 문제를 그들의 일상에 투영시켜 차별의 세세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작품은 일과를 마치고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는 저녁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가정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때인 ‘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다. 술에 취한 남편들이 아내를 구타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상에 깔려 있던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문제들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문화예술 이런 구성은 80년대 노동연극이 종종 보여준 구성, 이를테면 전형적인 한 사건을 통해 시대의 갈등을 표출하는 사례극적 구성과 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구타 사건 이후 집단가출한 아내들과 이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치는 남편들이 벌이는 갈등은 토론회 식의 ‘논리와 논리의 대립’인데, 이 부분은 과거 마당극의 요소가 강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이 작품에서 마당극 특유의 웃음과 연대라는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려 한 것인가.

김인경 이러한 관념과 관념의 대결은 80년대 초반 노동연극이 지향하고자 했던 관념적 마당극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은 놀이적 연출을 통해 관념이 아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주는 시사토론회의 방식이나 권투경기 등 익숙한 요소들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게 하는 방식은 보는 이들에게 놀이처럼 웃음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령 아내들과 남편들의 논쟁은 권투시합을 흉내 내는 것으로, 사각의 링은 마당에 만들어지는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말로만 웃기고 말로만 입장을 주장하면 듣다가 시들해진다. 그래서 상대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논리를 날릴 때, 권투에서 상대의 얼굴에 적중하는 펀치를 보여주는 슬로우 모션을 보여준다.

문화예술 어찌 보면 유쾌한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공감하고 웃는 지점은 분명 다르다. 이 작품의 결말처럼 파국을 모면하는 화해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점에서 대중적인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계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김인경 그럴 수도 있겠다. 중요한 점은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고 싶었고, 화해에 이르는 결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갈등, 예를 들어 가사분담이나 육아문제, 부부간의 물리적 심리적 폭력, 남아선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라서는 게 아니라 대립을 넘어 새로운 길찾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가족의 위기에서 출발해서 가족의 새로운 재결합으로 끝맺는 이 작품의 전개와 결말은 대중적인 드라마를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관객은 비평가가 아니라 그 일상을 살아내

는 사람들이다. 80년대라면 공격하는 데서 멈췄겠지만 이젠 공존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루하고 슬퍼도 웃을 수 있다

문화예술 통련을 거두고 호평을 받으면서 이례적인 성공으로 꼽히는 작품이 최근 공연한 <염쟁이 유씨>다. <학생부군신위>나 <축제>처럼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염을 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것은 무척 독특하고 죽음과 웃음이 더불어 있다는 점은 더 독특하다. 10년 가까이 마당극 배우로 살아오다가 극작가로 전환해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클 텐데,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었나?

김인경 마당극을 시작한 것은 올해로 10년이다.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민족예술단 우금치에 입단해서, 농민, 노동자, 철거민 등 소외받은 이들을 위한 작품을 공연하는 배우로 살아왔다. 그런데 정기공연 하루 전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난 배우니까, 공연을 놔두고 염을 하는 과정을 볼 수는 없었다. 그때 이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염쟁이 유씨>는 1인 마당극으로 기획하고 쓴 작품이지만, 적절한 극장이 없어서 현재의 방식으로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 배우인 유순웅 씨도 친한 선배고, 유 선배의 친구가 장의업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그때 보지 못한 염의 과정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입에 쌀과 돈을 넣어주는 장면이 얼마나 슬픈지 뒤늦게 알 수 있었다. 나중에 봐도 이 장면이 제일 슬펐고... 염을 해두면 얼마나 예쁜지도 작품을 쓰면서 알았다.

문화예술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마당극에 비춰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마당극 자체로만 관객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어땠나?

김인경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작품을 쓰는 것보다 무대에 올리기 위한 노력이 더 힘들었다. 일단 염을 하는 과정을 배우가 익혀야 했고, 그 다음에는 염하는 시간을 무대에 맞게 단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또 그 다음에는 시간을 재가면서 제 시간에 염하는 과정을 마치는 연습이 필요했다. 이 노력으로 끝나면 좋은데, 1인극이라 배우가 몸이 힘들어서 견뎌내질 못한다. 링거의 투혼을 발휘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관객이 찾아준다면서 몸을 추스르곤 한다. 팬클럽이 생긴 것도 처음이고 지난 2월 국립극장의 배우열전으로 큰 무대에 섰으니 유 선배나 나나, 모두에게 의미가 깊기도 하다. 제일 반가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마당극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관객 사랑을 진

하게 받아본 것은 처음인데, 상경 1주년 잔치 때 관 모양 초콜릿 케이크를 선물받아서 정말 놀라기도 했다.

이 작품이 단지 염을 하는 연극으로 그치지 않은 것은, 서로의 표정이 보이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마당극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관객은 늘 공연의 일부라야 한다. 그래서 공연을 시작할 때 관객 중 한 명을 지정해서 극 중에 등장하는 ‘기자’ 역할을 시키며 호응을 얻어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마당에서 만나는 관객은 그냥 사람들이다. 자기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모이고 같이 웃는다. 그냥 보고 돌아가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몰입도 공감도 커지기 마련이다.

나의 속제는 ‘시대정신’과 ‘지역’

문화예술 이젠 한 작품을 제대로 성공시켰으니, 이제까지 욕심내던 것들을 더욱 더 구체화시키고 싶을 텐데 무엇을 하고 싶은가?

김인경 마당극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내 속제고 목표다. 사실 아까 인터뷰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당놀이에 담긴 것은 ‘복고’지 ‘시대정신’이 아니다. 그에 비해 마당극은 낡은 장르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와 웃음을 관객과 나누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감대를 갖고 마당극의 대중화를 이뤄가고 싶다. 과거에는 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과 열정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정체된 느낌이라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경력 10년쯤 된 서른 중반의 여자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극작을 공부하려고 대전대학교 문예창작 대학원에 들어왔고, 앞으로 활동할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변형된 마당극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말을 화두로 두고 있으니, 일단 제대로 된 논문 하나 없는 마당극을 위해 좋은 논문을 쓰는 일도 해보고 싶다.

끝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와줬으니, 이 말은 강조해두고 싶다. 대전 연극계는 아직도 ‘싸롱연극’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있어야 공연이 있다는 건 알지만, 대전의 문화현실은 참혹하다. 연극전용 소극장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하고, 상시적으로 공연이 열려서 대전 시민들이 늘 찾게 만들어야 지역의 문화도 존립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전에서 활동할 생각이고, 대전 시민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